**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32-25:13 175**

**들어가면서**

1983년 5월 5일 대학 2학년이었던 저는 휴일이었지만 중간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어폰으로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서 이어폰을 빼서 그 소식을 도서관에 있는 모든 학생이 듣게 한 겁니다. 그러자 라디오에서부터 급박한 소리가 온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면서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전쟁 나는 거 아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들리던 한 학생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럼 우리 중간고사 안 보는 거 야냐?”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중간 고사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건 시험이니까요. 여러분! 만일 중간 고사를 안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반대로 누가 억울해 할까요? 그렇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은 시험 안 본다면 좋아할 겁니다. 반대로 죽기 살기로 공부한 학생은 시험 안 보면 억울해 할 겁니다. 나중에 보니 중국 민항기가 납치 되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울린 경보였습니다. 전쟁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실망했을까요? 예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실망했겠죠.

시험이란 게 없다면 공부 한 학생이나 안 한 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시험은 한 시간 보는 거지만 그 한 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에 가끔씩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핍박 받고 힘들게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다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하마터면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나중에 시 **73:** **17-19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때 이 땅에서 뭔가 불공평해 보이던 것들이 다 바로잡혀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가려내듯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공정하지 못했던 게 바로 잡힐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핍박 받고 억울한 일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단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모든 일그러진 것들이 바로 서는 날이고 성도들의 억울한 눈물이 닦여지는 날이고 온갖 악한 자들이 심판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쪽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주님의 심판을 받는 쪽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는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통해서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걸 알았다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재림의 징조**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깨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징조를 보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사귀를 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걸 보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 드린 대로 기근과 지진, 환난과 박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출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등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아!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잎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이고 거기에 한 때와 뚜 때와 반 때를 계산해서 종말의 날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안상홍이 세례를 받았는데 30세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과 같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30세였던 안상홍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건 비유를 풍유로 해석하는 건데 이런 류의 해석은 전부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비유를 말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모노 포커스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개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비유가 아니라 풍유, 즉 알레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딸 아이가 어릴 때 아빠는 이만큼 좋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 10개를 펼쳤다고 하면 ‘아! 어린 아이 수준에서 아빠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왜 하필이면 손가락 10개를 폈을까? 왜 발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일까? 손가락에 있는 마디 수를 합하면 28개인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제 말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해야겠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이지 풍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요즘 식으로 이야기 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어떤 아빠가 외국에 일하러 가는데 네 살 쯤 되는 딸이 아빠 언제 돌아와 라고 물을 때 아빠가 몇 달 후 10월 달에 올 거야 해도 아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애 저기 앞에 나무 있지? 저 나무의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면 아빠가 올 거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어느 날 보니 나뭇잎이 노릇노릇 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야! 이제 아빠 오실 날이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해야 정상이지요. 만일 큰 일 났다. 그 동안 엄마 말 안 듣고 뺀질거렸는데 이제 아빠 오시면 나는 죽었다. 이러지 않겠죠.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육체로 오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지쳐 있는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 깨어 있으라**

## 무슨 뜻?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24장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도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를 안다면 그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될 텐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둑 비유도 나옵니다. 만일 도둑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집에 도둑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집에 들어올 지 안다면 기다렸다가 잡거나 신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계속 깨어서 지켜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우선 열 처녀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있지 않고 다 잠 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그 중에 다섯 명,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24: 44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 대신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 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와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라고 하면 기도원 같은 데 흰 옷 입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원은 안 가도 최소한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한 번 읽어봅시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이 두 사람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고 밭에 있거나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명은 직장에서 일 하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집에서 세탁기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잠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 1) 기름을 준비하라

우선 열 처녀의 비유를 좀 더 살펴봅시다.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는 아마도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명 중에 다섯 명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반면에 다섯 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평소에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있기에 똑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옵니다. 그래서 전부 졸다가 자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때 열 처녀가 모두 자기 등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등에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압니다. 결국 그들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열 처녀 중 다섯 명은 문이 닫힌 잔치 집 앞에서 절망합니다.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노아의 방주 비유입니다. 방주도 어느 순간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심판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할 때 거절한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 잔치 비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잔치에 부름 받아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덮어줄 예복의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족의 권유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등불을 켜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3) 충성하라

그런데 그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지 제대로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견인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견인의 교리가 잘못 악용되면 마치 천국 행 티켓을 확보한 사람이어서 내 멋대로 살아도 그 티켓 한 장만 보여주면 당연히 천국 가게 된다는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혼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주인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주인이 중간 관리자 쯤 되는 종에게 자기 집 관리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책임을 맡은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때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한참 있어야 올 줄로 알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나쁜 짓을 일삼다가 갑자기 주인이 오면 그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그 종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갑자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으십니까?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맡겨 주신 모든 일은 교회가 맡기기 전에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특별히 순장님, 그리고 교사들이 계십니까?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야말로 순장님, 교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기셨습니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시는 그 분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장님만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더 중요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엄마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 일과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이 일인데 이 일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너무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야 말로 가장 복된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독박 육아 같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리고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그것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맷돌질 하다가, 혹은 밭에서 일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부름 받고 한 사람은 버림 받습니다. 같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부름 받고 한 사람은 버림 받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에서 일할 때 이게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사명으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산더미 같이 쌓인 빨래를 돌릴 때 이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사장님은 안 보시지만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근, 지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 받을 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맡기신 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주인이 보시기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야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소중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